

'알라딘' '기생충' 1천만명 고지 밝을까

'알라딘' 누적 관객수 922만명 7주째 박스오피스 선두권 높은 완성도·예술성 갖춘 '기생충' 977만명 관람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회사원 김 모(51) 씨는 요즘 출근길에 '알라딘'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를 듣는 재미에 빠졌다.

김 씨는 "영화를 보고 재스민 공주 역할에 크게 감동했다"면서 "여성이라는 중추 변수가 아니라 주제이자, 세상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메시지가 제가 딸에게 평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많이 냈고, 심지어 직접 문화관람권을 사 줘가면 서까지 영화를 보라고 독려했다"고 전했다.

영화 '알라딘'이 1천만 고지를 눈앞에 뒀다. 이달 7일 기준 누적 관객 수는 922만2768명. 지난 5월 23일 개봉해 7주째 박스오피스 선두권을 유지한 결과다.

이달 2일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 주말 극장 매출 70% 가까이 쓸어 담으며 독식한 가운데 '알라딘'은 2위 자리를 꿰차고 지켰다. 심지어 좌석판매율은 '알라딘'이 62.0%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49.8%)보다 훨씬 높았다. 4DX 상영관은 자리가 없어 인터넷에 압파가 등장할 정도다.

'알라딘' 주 관객층인 20~30대를 중심으로 'N차 관람'이 이어지는 데다, 기말 고사를 마친 중고등학생들의 유입도 이어졌다. '알라딘' 재관람률은 7.8%에 달한

다. '보헤미안 랍소디'(9.3%)보다는 낮지만, 역대 850만~900만명가량을 동원한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는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 관객 호응이 높다. CGV에 따르면 '알라딘'의 여성과 남성 관객 비중은 각각 71%와 29%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여성과 남성 비중인 54%와 46%와는 대조를 이룬다. 원작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살리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주제적인 여성 캐릭터로 변모시킨 점이 공감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알라딘'의 스크린 수는 현재 840여개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2128개)의 절반도 안 된다. 극장 관계자는 "이번 주 개봉하는 신작들의 공세를 잘 견뎌낸다면 1천만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지금까지 1천만명을 넘은 외화는 2009년 '아바타'(1362만명), 2014년 '인터스텔라'(1027만명), 2014년 '겨울왕국'(1029만명), 2015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1049만명),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1121만명), 2019년 '어벤져스: 엔드게임'(1382만명) 6편뿐이다.

한국영화 최초로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기생충' 역시 누적 관객 977만4310명을 기록 중이다. 1천만명 고지까지는 약 22만명만 남았다. 한 달 넘게 박스오피스 4위를 유지하



영화 '알라딘'



영화 '기생충'

며 평일에는 2만명, 주말에는 하루 3만명 안팎이 들고 있다.

현재 스크린 수는 400여개다. 이번 주에는 한국영화 신작 '기방 도령' '진땀' '남쪽한 기록' 등이 줄줄이 개봉한다. '기생충'이 신작 공세를 이겨내고 장기 상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극장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1천만명 직전에서 멈출지, 아니면 조금 넘을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생충'은 1천만명 돌파와 상관없이 높은 완성도와 예술성을 지닌 영화로 상업적 흥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작품이어서 의미가 크다. /연합뉴스



잇단 악재 '전참시', 관찰 예능 함정 빠지다

출연 매니저들 잇따른 하차 도덕적 자질 문제 등 '논란'

MBC TV 예능 '전지적참견시점'(이하 '전참시')에서 잇따라 터져 나오는 악재가 가려왔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연예인의 일상이 줄줄이 카메라 앞에 노출되는 '전참시'는 상대적으로 불려 나오는 요즘, '전참시'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매니저들을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가져다 놓으면서 프로그램 초반 신선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러나 매니저들의 잇따른 퇴사와 일탈로 '전참시'는 프로그램의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갑작스러운 퇴사부터 채무 논란·일진설까지=최근 '전참시' 게스트로 출연한 선미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선미의 '어미새' 매니저 이혜주 팀장은 회사를 그만뒀다.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참시'는 지난 4월 개그맨 박성광의 임종 매니저가 소속사에서 퇴사하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임종 매니저가 회사를 나가면서 '전참시'에 고정 출연하던 박성광도 자연스럽게 하차했다.

지난달 27일엔 이승은 매니저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제기된 자신의 채무 의혹을 인정하며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프로그램에서도 이승은과 동반 하차했다. 지난해 말 게스트로 출연한 광희 매니저는 '일진설'에 휘말리자 통편집되기도 했다.

'전참시'에 출연한 일반인 매니저들이 지속적으로 논란에 휘말리거나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면서 시청자들은 '전참시'를 두고 '매니저들의 무덤이 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 프로그램 진정성 '흔들'... "방송사가 먼저 자정 나서야"=출연자의 방송과 현실 간 괴리를 논란이 불거진 프로그램은 비단 '전참시'뿐만이 아니다. 앞서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등 연예인 일상을 비추는 프로그램도 출연자 미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빅뱅 멤버 승리는 출연한 몇몇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승츠비'(승리+개츠비)로 불리며 유능한 사업가로 그려졌지만, 후에 '바닝썬 게이트'가 터지자 이들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과거를 일일이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권을 지닌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검증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있던 한 예능 프로그램 PD는 "출연자 논란은 순전히 우연일 뿐"이라며 역을함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관찰 예능 자체가 리스크를 떠안고 수밖에 없는 포맷이지만, 방송 관계자들이 먼저 나서서 자정작업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관찰 예능은 출연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현실과 닮아있는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담는 형식인데, 그것을 뒤집는 논란이 나오면 프로그램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영철, KBS 3·1운동 100주년 운동주 콘서트 MC

이적·밴드 YB·백지영 등 출연

배우 김영철(사진)이 KBS와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3·1운동 100주년 기획 운동주 콘서트-별 헤는 밤' 진행을 맡는

다고 홍보사 쉐리토크가 8일 밝혔다.

'별 헤는 밤'은 다큐멘터리와 쇼가 결합한 콘서트로 운동주의 시와 삶, 음악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뜻으로 기획됐다. /연합뉴스

오는 18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리며 광복절 당일 녹화 방송한다.

콘서트에는 김영철 외에 가수 이적, 밴드 YB,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 그룹 스위트로우, 백지영, 크로스오버 사중창 그룹 포레스텔라, 뮤지컬 배우 민우혁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퍼퓸(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리는 날(재)	00 12 MBC 뉴스 25 다크 나이스...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우리말 겨우기		25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버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경성판타지(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크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썸지락
[8]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퍼퓸(재)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돌탈 김제동	00 퍼퓸	0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1~2부
[11]	35 UHD 숨터 40 거리의 만찬(재)	10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재)	05 PD수첩	
[12]	30 KBS 뉴스 40 KBS 걸작 다크멘터리(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100분 토론	00 나이트 라인 3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퍼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45 마사와 곰(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1~5
07:00 로보카 폴리	13:00 다큐 오늘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사건 브리핑 - 안전상황실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퍼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덩동댕 유치원1~2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초록빛 매혹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2부 마법의 고향 스카이스>
08:30 몬가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45 출동! 슈퍼원스(재)	<맛의 방주 2부>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크프라이
09:30 원더볼즈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건축담구 - 집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30 덩동댕 유치원1~2	23:55 미래교육 플러스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9일(음 6월 7일 丁未)

36년생 진정한 의미를 알라. 48년생 강구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르렀으니 즉시 도모하라. 60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하나씩 해결 될 것이다. 72년생 사리에 밝은 이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84년생 실제적인 내용이 충만해야 빛을 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7, 89	42년생 김홍이 흔해하니 방심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54년생 비중이 커질 것이다. 66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끌 수도 있느니라. 78년생 결실을 취하는 바가 풍성할 것이다. 90년생 곤혹스러운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리다. 행운의 숫자 : 90, 08
37년생 목격하는 바가 없다면 대체해도 무난하겠다. 49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딜 수밖에 없다. 61년생 여명이 밀려가는 어두움을 보게 되리다. 73년생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85년생 지나친 집착은 심신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81, 77	43년생 우연한 만남 속에서 행운이 따르게 된다. 55년생 불편하다면 개선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니라. 67년생 자유롭게 뜻을 펼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다. 79년생 내면적 실정에 충실함이 이익이다. 91년생 주제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63, 49
38년생 중대한 일이니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50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라. 62년생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방면에 득이 있다. 74년생 갈 길이 바쁘니 핵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86년생 적극적이여야겠다. 행운의 숫자 : 25, 64	44년생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핵심 가치를 놓치게 됨을 알라. 56년생 자질이 있겠다. 68년생 말로 직접 표현하라. 80년생 현실적으로 실현 될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진다. 92년생 오랫동안 소원해 왔던 바를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8, 01
39년생 중요한 것이니 절대로 놓치지 않음이 좋다. 51년생 역풍이지만 곧 순풍으로 바뀌리라. 63년생 쌓아 놓은 은덕으로 인해서 특별한 배려나 사례를 받을 수다. 75년생 중심을 벗어나면 결들 수밖에 없다. 87년생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 허점이 있다. 행운의 숫자 : 94, 36	45년생 가끔씩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57년생 필히 길상으로 향하라. 69년생 적합하므로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81년생 체계적인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법이니라. 93년생 놓치고 나서 후회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39, 61
40년생 내실을 기했을 때 발전을 꾀하게 되는 법이다. 52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64년생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나 해소될 수다. 76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하라. 88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성숙한 열매가 맺는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37, 78	34년생 주관을 버리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46년생 마지막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하겠다. 58년생 작은 흠결이 보이지만 염려할 바는 아니니라. 70년생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남이 예상된다. 82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밀려갈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78, 53
41년생 주변 사람의 괴로움을 보게 되리다. 53년생 크게 상관될 바는 아니니 꾀치지 말라. 65년생 지난날의 미진함을 만회하기에 좋은 날이다. 77년생 순류를 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89년생 진분을 가감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3, 12	35년생 동력이 약한 이치이다. 47년생 사소함에서 비롯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59년생 현하의 국세를 감안하지 않으면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71년생 새로운 문사나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리라. 83년생 벽을 치면 대들보가 울리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5, 5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열선" ☎010-9790-8237